

강이야기

4

River & Culture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신현배 | 시인,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남강

왜장을 꺼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논개

전라북도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에는 주촌 마을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장을 꺼안고 진주 남강에 몸을 던진 충절의 여인 논개는 1574년(선조 7년) 9월 3일 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논개의 아버지 주달문은 논개의 할아버지 주혁의 뒤를 이어 마을에서 훈장 노릇을 했습니다.

논개를 낳기 전에 그에게는 대룡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룡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들과 논개의 출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571년의 어느 날, 주달문의 부인인 밀양 박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갓난아이답지 않게 멍치가 몹시 컸으며, 용과 호랑이가 서로 다투는 얼굴 형상이었습니다. 게다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서더니 뒷목으로 서너 걸음 옮겨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범상치 않은 아이가 태어났다며 일부러 아이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달문과 밀양 박씨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이 관가에까지 전해지면 ‘나라를 망하게 할 역적이 태

어났다.’며 아이와 집안 식구들을 잡아 죽일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수가 없소. 관가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겠소.”

주달문은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더니 부인에게 자기 결심을 털어놓고, 한밤중에 아이를 죽여 마을에서 가까운 대곡천의 소(沼)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길 때 별안간 앞산 너머 하늘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날개를 단 용마가 나타나 주달문의 집 지붕 위 하늘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용마는 대곡천으로 날아가 아이의 시신을 던진 소로 들어갔습니다. 주달문은 이것을 보고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아뿔싸! 내가 목졸 짓을 했구나. 장수가 될 아이를 죽였어. 큰 죄를 지었어.’

주달문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월이 흐른 뒤 그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을 그르쳤구나. 장차 이 나라에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에 대비해 대장군이 될 재목을 보냈는데, 네가 그 재목을 잘라 버리면 어찌하느냐?”

노인은 주달문의 조상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달문을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주달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장군이 태어날 명당에 묻혀 그 기운으로 대장군을 보낸 것이다. 다행히 그 기운이 조금 남아 있어 이번에는 여장수를 보내니 고이 기르도록 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 훗날 우리 가문을 빛내고 이 나라에 호국 정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얼마 뒤, 밀양 박씨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낳고 보니 딸이었습니다. 주달문은 딸 이름을 ‘논개’라 짓고 정성스럽게 길렀습니다. 서당에서 남자아이들과 더불어 글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달문은 딸이 어른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논개가 열세 살 때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논개와 어머니 밀양 박씨는 의지할 곳이 없어 숙부인 주달무의 집에 들어가 같이 살았습니다.

주달무는 욕심이 많고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는 김풍헌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김풍헌에게는 바보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을 장가들이려고 주달무를 꾀었습니다. 그래서 주달무는 돈 몇 푼을 받고 논개를 김풍헌의 집에 민며느리로 팔아 버렸습니다.

논개와 논개의 어머니 밀양 박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가 그런 집에 민며느리로 들어갈 수는 없다. 우리 멀리 도망치자!”

밀양 박씨는 딸을 데리고 친정집이 있는 경상도 서하 봉전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김풍헌은 논개와 논개 어머니를 장수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장수현감은 최경희였습니다. 그는 논개와 논개 어머니를 잡아들여 심문을 했습니다.

논개는 어머니에게 5년 동안 관청에서 종살이를 하라는 형이 내려지자 장수현감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해 힘든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 대신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네 마음씨가 가룩하구나. 좋다. 네가 어머니 대신 2년 동안만 일하도록 해라.”

논개에게 맡겨진 일은 관청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논개는 부지런히 이 일을 하며 지성으로 현감 부인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당시 현감 부인 나주 김씨는 중병에 걸려 몸져누워 있었습니다.

나주 김씨는 일 년 뒤에 세상을 떠났는데, 장수현감 최경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논개를 후취 부인으로 맞이하세요. 논개가 당신 곁에 있다면 내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최경희는 부인의 유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논개의 종살



이가 끝나자 논개를 후취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논개는 남편을 정성스레 섬겼습니다. 최경회도 부인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최경회는 의병장이 되어 남원·임실·전주·무주·금산·함양·거창·산음·합천·성주 등지에서 왜군을 무찔렀습니다. 또한 제1차 진주성 싸움에서는 김시민·임계영 장군을 도와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최경회는 이 공으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6월에 왜군은 10만 대군을 모아 다시 진주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최경회 장군은 창의사 김천일, 충청병사 황진, 의병장 고종후 등과 함께 왜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6천여 명의 군사로 왜군 10만 대군을 상대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진주성은 일주일 만에 함락되었고, 최경회 장군은 김천일, 고종후 등과 함께 남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논개는 이 소식을 듣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놈들이 서방님의 목숨을 빼앗아갔구나. 용서할 수 없다! 서방님의 원수를 반드시 갚고 말 것이다.”

논개는 입술을 깨물며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진주성을 점령한 왜군들은 칠월칠석날 축석루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논개는 이 소문을 듣고 기생으로 변장하여 칠석날 축석루로 갔습니다.

“진주 기생 논개가 인사 올립니다. 제가 드리는 술을 받으시지요.”

논개는 왜장들에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가야금 연주를 했습니다.

왜장들은 논개를 보자 넋을 잃었습니다. 논개가 빼어나게 아름다운데다, 노래와 가야금 솜씨가 남달리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왜장들은 논개가 따라주는 술을 정신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이들은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취했습니다.

논개에게 흠뻑 빠진 것은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였습니다.

다. 그는 가토 기요마사의 부장으로, 전쟁터에서 큰 공을 많이 세운 장수였습니다.

게야무라 로쿠스케는 별떡 일어나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논개, 나와 함께 춤을 추지 않겠나?”

논개는 웃으며 반겼습니다.

“ 좋습니다. 저로서는 영광이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잘 만났다. 서방님의 원수를 갚아 주마.’

논개는 왜장을 끌어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축석루 서편의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 바위까지 갔습니다. 그 바위 밑에는 남강의 푸른 물이 굽이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위험한 바위라 해서 ‘위암’이라 불리었습니다. 술에 취한 왜장은 바위 위에서 논개를 부동켜안았습니다.

논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장을 꼭 끌어안은 채 남강으로 몸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논개가 왜장을 꺼안고 뛰어내린 바위를 ‘의암(義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축석루 서편에 논개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논개 사당 ‘의기사’를 세워 제사를 지냈습니다.

요즘도 장수군에서는 논개의 생일인 9월 3일을 ‘군민의 날’로 정해 논개의 정신을 되새기는 갖가지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